

# 개발도상국의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 전망과 과제

안토니오 아란테<sup>1</sup>

브라질 캄피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

## 요약

이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다음 (1) 문화적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과 소멸의 의미와 (2) 문화 보호와 사회발전 계획 간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 공동체가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무형문화유산이 소멸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 레퍼토리가 폐쇄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때로 같은 사회 체제 내에서도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바라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사회 갈등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특히 위험에 처한 사회 관습과 전통 지식의 보호는 사회 개발 프로그램, 무엇보다 교육, 가계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수행했던 직접 관찰과 경험에서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의 시간 및 진행 상의 제약으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 캄피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 브라질 공예연대 '아르메술' 이사회 이사 역임.

## I. 들어가는 말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사회 관습의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과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관습에 부여한 의미의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란 무형문화유산협약에 사용된 문구 그대로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 혹은 위기”를 의미하는가?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수용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어떤 변수와 한계가 문화유산 보호 개발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유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II. 소멸과 문화적 변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어느 사회에서건 소멸과 파괴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기존 생활 방식의 생명력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레퍼토리의 피폐화를 의미하는 변화와 문화 공동체가 갈망하는 미래에 부합하고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역동성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문화적 요소의 지속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가려낼 수 있으며 적어도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하는 변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시된 기능적 구분법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1) 사회적 구성

원 가운데 누가 이러한 소멸을 인식하는가 (2) “위기에 처한” 유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3)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생산에 필요한 물질 자원의 고갈로 인해 그들의 유산의 지속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물은 이러한 사회환경적 이유로 위협에 처해 있다. 또 다른 위협 요소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대중매체와 소셜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가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문화유산 관습을 지속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속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무형문화유산 관습이 편견과 편협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워크숍에서 유산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전해들은 바가 있다. 조상 숭배와 관련한 의례의 연행 - 때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 방해하거나 공공장소에 전시된 민족적 상징물을 향한 폭력적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유산 보유자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보호 활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의 결과로 인해 성별과 연령의 차이에 근거한 위계질서와 세력관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브라질 동북부지역의 비정부기구인 아르테솔(Artesol)이 수행한 최소 두 건의 프로젝트에서 필자는 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 당시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보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남성은 실업자이거나 저소득층에 속했기 때문에 아내가 일터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공동체 내외에서) 여성의 권리와 대중적 인지도가 신장되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자 예로부터 가정의 영역에서 남성이 차지했던 우월한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이나 포기나 항상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들을 원산지에 반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가의 재건과 민족과 사회 집단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전통 관습 및 지식이 빈번하게 부활되거나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유산의 관습이 일시적일지라도 단절되고 나면, 전통 지식과 기술의 전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 수공예의 실연과 구전문학, 음악, 무용 등의 연행에 필요

한 문화적 역량은 상당 부분 실행자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유산의 실행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며, 모방을 통해 습득되고 반복되는 연습과 기술적 지도에 의해 정제된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관습은 보통 장인과 도제 간의 도덕적 계약을 내포하며 의식을 통한 입문의 형식을 갖추기도 한다.

전승이란 개인 또는 세대 간의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위계질서, 성별과 연령, 재화의 상속, 특권과 권력의 공식적 계승 등의 사회적 구조와 같은 사회학적 단계 및 절차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문화유산 보유자의 의도와 갈망의 일부로서 역사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해온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어떤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소멸했다는 것은 어느 한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범위의 축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바라는 바이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사회 갈등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그렇듯, 계층화되고, 이질적이거나 분열된 사회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가치관의 충돌이나 경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소멸과 위협에 처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동인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방해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 창조와 관련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가치는 연행 공동체가 의미를 부여하고 동시에 지역 및 국제적 보호기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중적 현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화유산화 한다는 것은 특히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다.

이는 말하자면, 문화간 대화, 타협 그리고 심심치 않게 생겨나는 오해를 기반으로 구축된 문화유산화의 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토대와는 상관없이 저간의 핵심은 선택된 문화적 실체를 문화유산 상품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유산 보호기구와 그 기구들이 대표하는 지배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들에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서 주제를 공동체의 참여로 확대하면, 문화유산 종목의 소멸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개입조치는 연행자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정치적 결정은 개입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산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래 계획에 이들 문화 관습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는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논함에 있어서 내부 갈등이나 긴장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전쟁, 대규모 농업 사업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또는 장기적인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온 정착지와 영토를 버리고 떠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화와 노동 수단은 파괴되고 사회성과 결속의 근간을 제공하던 사회 구조가 무너지게 되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발전하고 재창조되던 기술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동체의 생활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위협에 직면한 바로 그 전통에 의지해서 지속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강조하는 과업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III.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인구의 절대 다수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개발을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점진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화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해 내는 방식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질적으로나 인류의 존엄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구축한 지식 및 역량과 관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물질적, 상징적 자원이 누적된 결과이며, 자원을 보유한 사람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 정보 통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유산 축적에 기여한다(할 수 있다). 그러나 세습되는 부로서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고 그들 관습의 근거가 되는 심리 사회적, 상징적 의미가 소모되고 고갈되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 분야의 모든 정치적 주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전통 공예 분야를 보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생산 규모의 증가로 천연자원 원료와 개인 또는 집단이 축적한 소규모 자본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생산 단위가 증가하거나 재편되고 하루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소규모 공동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상업화는 아무런 특징 없이 밋밋하고 생명 없는 공예품을 양산해 낸다. 공예품의 상징성은 그 기술의 탁월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 상황에 봉착한 무형문화유산을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입게 되는 집단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사회적으로 규제되고 종종 전문가 및 가족, 또는 소규모 생산자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시장 가치의 증가로 인한 혜택은 이들 소규모 주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그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노동 분배구조나 공동체 내 네트워크와 집단 간의 관계에 따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접적인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와 시장 두 영역에서 물질적, 상징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품은 대량생산되고 표준화된다. 결과적으로 수공예품, 공연 혹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사장 판매를 위한 문화유산 상품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소는 바로 기계적으로 내용 없는 상품만을 복제하는 것이다. 전통 무형문화유산은 공격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아 붕괴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건과 한계를 확인해만 한다. 그 조건과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잠재성이 발굴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전통 문화는 그 자체로 유연하며,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남는다. 그러나 전통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제한적인 요소는 유산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성원들과 연관 기관들은 유산을 발굴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소외시킨 국가가 문화정책 분야에서 공동체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나 위협에 처했다고 여기는 문화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내부의 노력 및 외부의 보호 계획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인류학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바로 외부인들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수단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도시화되고 세계화된 외부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 IV. 맺음말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범위는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 특히 위기와 급속한 사회 변화의 상황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표현물, 즉 만들어진 사물이나 공연된 연극, 말로 표현된 이야기기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표현물에 사회적 경험에 뿌리를 둔 유산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보다 추상적인 실체일 것이다. 다시 말해, 보유자들이 지닌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언어 등 문화적 표현을 해내는 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생산품, 공연된 작품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물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기억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현해내는 그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살아 숨쉬고 있다. 브라질과 프랑스령 기아나 사이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Wajãpi) 사례가 증명하듯이, 어떤 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에서 현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양하고 오래 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전과 만들어진 결과물 속에서 언어와 지식이 영속화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무형의 요소야말로 모든 문화유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자기결정권, 창작권,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산 전승에 필요한 조건, 지식, 재료(materials)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 및 민간 협회와 같은 외부 주체들은 인간 및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서 문화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여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